

여성의 HIV 감염

더 적극적인 정신, 사회적 도움 절실

남성에 비해 여성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이성간 성관계에 의한 감염이 주요 전파 경로가 되면 여성에서의 감염이 점차 증가할 것이고 수직 감염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 감염인에 대한 집중적인 사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



최영화
이주대병원 내과

전세계 여성의 HIV 감염은 2000년말 3,600만 감염자 중 47%인 1,692만명이었다. 지역별로는 15세에서 49세 사이 성인 유병률이 8.8%에 이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감염자의 55%가 여성이다. 주요 감염경로는 이성간 성관계이다.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은 35~40%, 동부유럽이나 남미, 북미 지역은 20~25%이다. 여성감염자의 비율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서는 주요 감염경로가 남성간 동성애나 마약사용자, 이성간 성 관계에 의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1985년 전체 에이즈 환자의 7%이던 것이 1996년 20%로까지 증가하였다. 이성간 성관계가 주요 감염 경로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여성 비율이 높아 전세계 신생아 감염의 90%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성간 성관계에 의한 감염이 우세하게 되면 여성의 감염정도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HIV감염에는 남성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여성은 성행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결정권이 남자보다 적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2000년 말 총 1,280명의 감염자 중 남성이 1,110, 여성이 170명으로 성비는 약 6.5:1이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 발견된 73명의 HIV감염자 중 여성이 15명

으로 20.5%를 차지하였다. 특히 초기 3년간은 HIV감염자 14명중 여성이 8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업체 부에 대하여 검진 이루어졌고 이 집단에서 HIV감염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도 이후 신규 감염자에서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12.6%(5.0~18.2%)이다.

이성간 성 관계 때문에 HIV감염이 일어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HIV감염자의 남녀 성비가 1:1에 가까운데 비하여 우리나라 감염자의 성별 분포는 동성애와 마약사용에 의한 HIV감염이 주류인 북미나 유럽과 비슷한 양상이다. 향후 이성간 성 관계를 통한 감염이 늘어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에서의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 콘돔사용이 가장 안전

세계적으로는 감염경로의 약 90%가 이성간 성 관계이다. 이성간 성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염기전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HIV가 감염자의 정액에서 분리되었으며 여성의 질액에서도 분리되었다.

이성간 성 관계로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 남자 감염자가 여자에게 옮기는 경우가 여자 감염자가 남자에게 옮기는 경우보다 많다. 이는 정액이 경부 질액보다 많고 정액에 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HIV가 성 관계마다 일정하게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



콘돔과 같은 막을 이용한 피임법은 피임법뿐만 아니라 HIV나 다른 성병을 부분적으로나마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 권장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한번의 성 관계에서 감염되기도 하며 수백 번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감염되지 않기도 한다. 노출 후에도 감염되지 않는 경우는 바이러스의 양, 면역반응, 바이러스의 병독성 등 복합적인 요소가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질의 경우 감염된 여성과 1회 성 관계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25%이고 감염된 남성에서 여성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약 90%에 달한다. HIV의 경우는 임질균보다 전파 효율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잠복기가 길어서 상대적으로 감염률을 알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보고된 바로는 1회 성관계에서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3%, 이성간 접촉에서 0.1%까지 보고되어 있다.

이성간 성 관계에 의한 전파에 관련된 위험인자들에는 바이러스 혈중 정도, HIV의 진행정도, 동반된 성병의 유부, 월경중 성 관계, 항문성교, 외상을 동반한 성교, 성교의 횟수 등이며 이외에도 여러 인자들이 관련된다. 항에이즈 약제를 복용하여 혈중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기부위의 분비물에서는 검출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때문에 위험이 낮기는 하나 혈중 바이러스가 적더라도 성 관계 상대자나 태아에게 여전히 HIV를 옮길 수 있다.

따라서 이성간 성관계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한 방법이 주요 관심사가 된다. 성병의 치료는 HIV 전파와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탄자니아의 연구에 의하면 광범위하게 성병을 선별검사하고 증상이 있는 성

병을 치료하며 성병검사도 없고 치료가 가능하지 않았던 지역에 비해 HIV의 발생을 40% 감소시킬 수 있었다. 막을 이용한 피임 방법은 HIV 감염을 막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콘돔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군에서는 이성간 전파가 없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에 100명당 4.8명이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돔과 같은 막을 이용한 피임법은 피임법뿐만 아니라 HIV나 다른 성병을 부분적으로나마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여성 HIV 감염자의 관리, 적극적 지원 절실

국내에서는 여성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이성간 성 관계에 의한 감염이 주요 전파 경로가 되면 여성에서의 감염이 점차 증가할 것이고 수직 감염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항에이즈 약물의 투여와 기회 감염 예방이 중요하고, 더불어 부인과 적 전환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자가 여성인 경우 가장장적인 사회모습을 투영하여 남자 환자보다 치료를 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성행위에 있어서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결정권이 적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감염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과 가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경제적 독립이 어렵다는 점에서 치료에 소극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성 HIV 감염자는 보다 적극적인 정신적, 사회적 도움과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